

## 『새한글성경』을 중심으로 한 역본 비교 연구 — 로마서 —

권연경\*

### 1. 들어가는 말

『새한글』의 목적은 젊은이들이 성경을 더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쉽기도 해야 하지만, 성경 번역인 만큼 무엇보다 원문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문의 문법적 구조뿐 아니라 어원적 특성과 어순의 강조점까지 최대한 반영하여 원문의 의미를 최대한 정확하게 담아내고자 했습니다.<sup>1)</sup> 이런 원칙들이 항상 수월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의 문법적 구조는 우리말의 문법 구조와 다릅니다. 어원적 특성을 따지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어원에 대한 무분별한 집착은 시대와 함께 달라지기도 하는 단어의 생생한 의미를 왜곡하기도 합니다. 어순의 문제도 미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배열하는 방식이 언어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분명한 원칙이 있어도 실제로는 확실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번역은 늘 진행형일 수밖에 없습니다.

『새한글』 역시 여러 가지 면에서 나름의 한계를 지닙니다. 그러나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본격적 성경 번역이라는 점에서, 기존 번역의 아쉬움을 개선하는 측면 역시 적지 않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새한글』의 장점 중 하나는 원문의 논리적 흐름을 최대한 정확히 살려내려 노력한 점입니다. 전체적으로 설화(narrative)에 속하는 복음서나 사도행전과 달리, 서신서는 상

\* King's College London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 [yonkwon@ssu.ac.kr](mailto:yonkwon@ssu.ac.kr).

1) “머리말”, 『새한글성경』 (서울: 대한성서공회, 2024).

당 부분이 논증(discourse)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논리적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대부분의 우리말 번역은 적지 않은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논리적 흐름을 이끄는 핵심 수단인 접속사를 제대로 번역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각 절을 끊어 읽는 나쁜 습관 역시 이런 번역의 문제와도 무관치 않습니다. 교회의 복음 이해가 많은 부분 바울서신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 빈 자리가 여간 크지 않습니다.

물론 접속사 자체가 다양한 만큼, 그 역할 또한 다양합니다. 그래서 실제 논리적 흐름과 무관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는 접속사 중 하나인 γάρ가 대표적입니다. 매우 느슨한 관계를 나타낼 때도 있고, 심지어 거의 숨 고르기를 위한 허사처럼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뚜렷한 생각의 흐름을 전달하는 논리적 접속사로 활용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접속사의 용법을 자세히 관찰하는 것은 본문의 생각을 정확하게 번역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절차의 하나입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바로 이 부분에서 『새한글』은 기존의 번역들에 비해 한결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반적으로 접속사의 존재에 유의하면서 본문의 논리적 흐름을 정확하게 드러내려고 상당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지면 관계상, 로마서 전반부의 몇 구절을 선별하여 검토하면서 이 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2. 로마서 1:16-17

GNT <sup>5</sup>	a) Οὐ γὰρ ἐπαισχύνομαι τὸ εὐαγγέλιον, b) δύναιμις γὰρ θεοῦ ἐστίν ... c) δικαιοσύνη γὰρ θεοῦ ἐν αὐτῷ ἀποκαλύπτεται
『개역개정』	a) 내가 복음을 <u>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u> b) 이 복음은 ... 하나님의 <u>능력이 됨이라</u> ... c)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u>나타나서</u> ...
『새번역』	a) 나는 복음을 <u>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u> b) 이 복음은 ... 하나님의 <u>능력입니다.</u> ... c)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u>나타납니다.</u>
『공동개정』	a) 나는 그 복음을 <u>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u> b) 복음은 ... 하느님의 <u>능력입니다.</u> ... c) 복음은 하느님께서 ... <u>길을 보여주십니다.</u>
『성경』	a) 나는 복음을 <u>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u> b) 복음은 ... 하느님의 <u>힘이기 때문입니다.</u> ...

- 『새한글』
- c)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게시됩니다.
  - a)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거든요.
  - b)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
  - c)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 2.1. 본문의 논리적 흐름

이 본문은 접속사 γάρ가 이전 진술의 근거를 보여 주는 논리 접속사로 활용된 대표적 사례입니다. 우선 16절 a)는 15절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곧 그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15절). 또 16절 b)는 a)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복음이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c)는 b)의 근거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sup>2)</sup> 이처럼 16-17절에는 몇 가지 핵심 주장과 그 근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는 그가 로마에 방문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이유를 제공합니다. 이 핵심 진술 내의 논리적 흐름은 로마서 전체의 논증을 이해하는 데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번역은 이런 논리적 관계를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 2.2. 차이점 관찰

(1) 우리말 역본은 대부분 a) 문두의 접속사 γάρ를 번역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6절은 앞선 15절과 분리된 새로운 논증의 시작처럼 읽힙니다.

(2) 기존 역본 중 b)에서 접속사 γάρ를 근거의 접속사로 번역한 것은 『개역개정』과 『성경』(2005)입니다. 『개역개정』은 ‘… 됨이라’ 하는 종결어미를 사용했고, 『성경』(2005)은 더 현대적 표현인 ‘때문입니다’를 사용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새번역』, 『공동개정』은 여기서도 접속사를 무시하고 b)를 독립된 진술로 번역했습니다.

(3) c)의 경우, 기존 역본 어느 것도 문두의 접속사 γάρ를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c)는 b)와 직접 관련이 없는 새로운 진술처럼 읽힙니다. 『공동개정』은 각 절을 상세히 풀어 길게 설명했지만, 막상 b)와 c) 사이의 논리적 흐름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2) 주요 주석들은 이 점을 분명하게 인식합니다. 가령, D. Moo, *The Epistle to the Romans* (Grand Rapids: Eerdmans, 1996), 69; M. Wolter, *Der Brief an die Römer. Teilband 1: Röm 1-8*. EKKNT (Neukirchener: Neukirchen-Vluyn, 2014), 119.

(4) 기존 역본들과 달리, 『새한글』은 세 절(clause) 모두에서 접속사 γάρ를 번역하여 이들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드러내려 했습니다. a)에서는 ‘않거든요’라는 종결어미를 사용하여 15절과의 관계를 나타냈고, b)와 c)에서는 좀 더 명시적으로 ‘때문입니다’를 사용하여 각 절이 바로 앞 진술의 근거 진술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 2.3. 외국어 역본 참조

(1) NAS, NRS, NIV 등 대부분의 영어 역본은 a)에서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두의 접속사 γάρ를 ‘for’로 번역하여 앞 진술과의 연관 관계를 표시합니다. 이는 ‘Denn’(Luther Bibel[이하 LB], Einheitsübersetzung[이하 EIN], Münchener[이하 MNT], BasisBibel[이하 BB]) 혹은 ‘Car’(LSG) 등으로 번역한 독일어나 프랑스어 역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 b)의 경우도 접속사의 존재를 의식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영어 역본들은 다소 느슨한 ‘for’(NAS) 내지는 더 강한 ‘because’(NIV, HCS)로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미콜론으로 둘의 관계를 가볍게 암시하거나(NRS), 접속사를 아예 무시한 역본도 있습니다(NLT). 다른 외국어 역본에서도 강한 접속사 ‘denn’(LB, Zürcher Bibel[이하 ZB], MNT)을 사용하는가 하면, 콜론(colon)이나 세미콜론(semi-colon)을 이용하여 두 진술을 연결하기도 합니다(LSG, EIN, ZB). 반면 영어 NLT나 독일어 BB는 접속사를 번역하지 않고 b)를 하나의 새로운 진술로 만들었습니다.

(3) c)의 경우 대부분 역본이 ‘이유’의 접속사를 사용하여 앞 절과의 관계를 표현합니다. 여기서는 ‘for’(NAS, NIV, NRS), ‘parce’(LSG) 및 ‘denn’(LB, ZB, MNT) 등의 접속사들이 사용되었습니다. ZB는 접속사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문장 중에 ‘nämlich’를 넣어 앞 절과의 관계를 나타내려 했습니다. 독일어 BB는 여기서도 접속사를 번역하지 않고 c)를 독립된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2.4. 차이점에 대한 평가

(1) 우리말 번역의 경우, 세 절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의식하지 않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개역개정』에서 약하게나마 번역된 b)의 접속사조차 무시한 『새번역』의 움직임은 오히려 『개역개정』보다 한걸음 후퇴한 모습을 보입니다.<sup>3)</sup> 『공동개정』은 이

3) 여기서 논할 사안은 아니지만, 논리적 흐름에 대한 무관심은 『새번역』 전체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한계로 보입니다.

해하기 쉽도록 문장을 풀어 길이가 상대적으로 깁니다. 하지만 접속사를 전혀 번역하지 않아 각 문장을 통해 흐르는 생각의 흐름을 전달하는 데는 별로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2) 외국어 역본들은 대체로 논리적 관계를 잘 나타내지만, 간혹 접속사를 무시한 역본도 있습니다. b)의 경우 몇몇 역본들이 콜론이나 세미콜론을 활용한 것을 보면, 각 진술 사이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생겨날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말 역본에는 해당되지 않는 외국어만의 특징입니다.

(3) 우리말의 『공동』이나 『공동개정』처럼, 영어의 NLT나 독일어 BB의 경우에도 좀 더 쉬운 번역을 의도한 역본들이 오히려 논리의 흐름을 밝히는 데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것처럼 보입니다. 각 문장의 표현은 쉽게 하려 했지만, 문장 사이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는 관심을 덜 기울인 셈입니다. 아무리 표현이 쉬워도 생각의 흐름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번역으로서의 취지가 무색해질 것입니다.

(4) 반면 『새한글』은 가능하면 쉽게 풀어 쓰는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원문의 접속사를 무시하지 않았으며, 각 상황에 맞게 적절한 방식으로 번역했습니다. 읽기 쉬운 번역을 지향하면서도, 각 절의 논리적 흐름에 세심하게 주의하면서 독자가 생각의 추이를 정확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말 역본 중에서는 본문의 논리적 흐름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3. 로마서 2:1

- GNT<sup>5</sup>
- a) Διὸ ἀναπολόγητος εἶ, ὦ ἄνθρωπε πᾶς ὁ κρίνων
  - b) ἐν ᾧ γὰρ κρίνεις τὸν ἕτερον, σεαυτὸν κατακρίνεις,
  - c) τὰ γὰρ αὐτὰ πράσσεις ὁ κρίνων.
- 『개역개정』
- a) 그러므로 …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 b)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 c)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 『새번역』
- a) 그러므로 … 그대가 누구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 b)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 c)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공동개정』
- a) 그러므로 …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 c)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도 똑같은 것을 하고 있으니

- 『성경』 b) 결국 남을 판단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단죄하는 것입니다.  
 a) 그러므로 … 그대가 누구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c) 남을 심판하면서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으니,  
 b) 남을 심판하는 바로 그것으로 자신을 단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새한글』 a) 그러므로 그대가 누구든 그대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b) 남을 판가름하는 그 일로 … 스스로를 … 판가름하고 있으니까요.  
 c) 판가름하는 당신이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 3.1. 본문의 논리적 흐름

이 본문에서도 생각의 흐름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은 1장에서 확보된 도덕적 선명성을 논리적 발판으로 삼아 역으로 ‘남을 판가름하는 사람’을 비판합니다. 문두의 ‘그러므로(δὴν)’는 앞 1장에서의 도덕적 비판의 논리를 이어받습니다. 핵심 주장은 ‘남을 판가름하는 사람’ 자신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입니다(a). 잠시 후 분명해지는 것처럼,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2:3-5). 다른 사람을 판가름하는 사람 자신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판가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γάρ). 한 걸음 더 나아가, 남을 판가름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판가름하는 셈인 이유는 그렇게 남을 판가름하면서 자신도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γάρ).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판가름하고 있으니, 사실상 자기 자신을 판가름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주장이 입증됩니다. 핵심 주장(a) ← 근거(b) ← 근거(b)에 대한 근거(c) 형태의 논증입니다. 본격적 비판 첫머리에 나오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주장은 긴 논증 전체의 결론과 상응합니다(3:19-20). 그런 점에서 이 핵심 논증을 선명하게 인식하는 것은 전체 논증의 주된 논점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 3.2. 차이점 관찰

(1) 모든 역본은 a) 문두의 접속사(δὴν)를 ‘그러므로’로 번역하여, 앞 단락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c)의 경우도 모든 역본이 접속사 γάρ를 근거/이유의 의미로 확실하게 옮깁니다.

(2) b)의 경우, 『개역개정』은 ‘것은 … 이니’로 연결하여 b)가 a)의 근거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새번역』의 ‘셈입니다’ 역시 둘 사이의 관계를 암시합니다.

(3) 『공동개정』은 b)와 c)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려고 어순을 바꾸어, ‘있으니 … 자기 자신을 단죄하는 것입니다’라고 풀었습니다. 또 부사 ‘결

국’을 더해 b)가 문장의 핵심 주장인 것처럼 읽히도록 했습니다. 『성경』(2005)은 종결 어구를 『공동개정』과 똑같이 어순을 바꾸었지만, ‘때문입니다’로 바꾸어 논리 관계를 더 분명하게 표현했습니다.

(4) 『새한글』은 어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a)와 b)와 c)의 접속사를 모두 근거/이유의 의미로 명확하게 표현해 주었습니다(‘그러므로’; ‘하고 있으니 까요’; ‘때문입니다’).

(5) 외국어 역본들은 대부분 세 접속사 모두 근거 혹은 이유의 접속사를 활용하여 이들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다만 b) 문두의 γάρ를 번역하지 않은 ZB나 BB가 부분적인 예외입니다.

### 3.3. 차이점에 대한 평가

(1) 외국어 역본들의 경우는 대부분 본문 속 세 절 사이의 관계 및 이전 단락과의 관계가 매우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2) b)에서 『새번역』은 ‘셈입니다’ 하는 종결어미를 사용하여 앞 절과의 논리 관계가 더 모호해졌습니다.<sup>4)</sup> 앞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생각의 흐름을 살리는 점에 있어서는 『개역개정』보다 오히려 한 걸음 더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 『공동개정』과 『성경』(2005)의 경우, b)와 c)의 순서를 바꾸어 b)와 c) 사이의 논리적 관계는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어순을 바꾸고 동시에 (『공동개정』의 경우) ‘결국에는’까지 더해져 마치 b)가 최종 결론인 것처럼 읽힙니다. 따라서 이 번역으로는 a)가 문장의 핵심 주장이며 b)는 그 핵심 주장을 돕는 근거라는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4) 위에서 관찰한 대로 『새한글』은 달리 어순을 바꾸지 않으면서도 세 접속사가 전달하는 논리적 흐름을 뚜렷하게 드러냅니다. 『개역개정』처럼 논리적 연결이 다소 약하거나, 『새번역』처럼 모호하지도 않습니다. 또 『공동개정』과 『성경』(2005)처럼 b)-c) 사이의 연결을 강조하느라 a)-b) 사이의 관계를 단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원문의 논증 순서를 그대로 따르면서 그 논리적 흐름을 선명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이 구절 역시 우리말 역본 중에서는 가장 잘 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셈입니다’는 ‘어떤 형편이나 결과를 나타내는 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pageSize=10&searchKeyword=%EC%85%88\(2024.09.06.\)](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pageSize=10&searchKeyword=%EC%85%88(2024.09.06.)).

## 4. 로마서 3:22

- GNT<sup>5</sup> a) δικαιοσύνη δὲ θεοῦ διὰ πίστεω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εἰς πάντας τοὺς πιστεύοντας.  
 b) οὐ γάρ ἐστιν διαστολή
- 『개역개정』 a)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b) 차별이 없느니라.
- 『새번역』 a)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b)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 『공동개정』 a)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b) 아무런 차별도 없이  
 c)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성경』 a)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오는 하나님의 의로움은 믿는 모든 이를 위한 것입니다.  
 b) 거기에는 아무 차별도 없습니다.
- 『새한글』 a)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생겨나는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b) 거기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으니까요.

## 4.1. 본문의 논리적 흐름

1:16 이후 바울의 주된 관심사는 유대인과 비유대인 모두가 동등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유대인의 실천 없는 선민의식의 공허함을 폭로하면서(2:1-3:20),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같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선언합니다(21절). 우선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 무관하게 온다는 사실 및 그 의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의해 증언되고 있음을 밝힌 후(21절), 이 ‘하나님의 의’가 오는 진정한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 의가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밝힙니다(a). 이렇게 모두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은, 앞에서 줄곧 논증해 온 것처럼(3:19-20),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남다름을 주장할 근거, 유대인과 비유대인 사이에 차별이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b). 여기서 접속사 γάρ에 이끌리는 b)는 a)의 최종적 귀결이 아니라, 핵심 결론 a)를 위한 이유 혹은 근거를 제공합니다.



## 4.2. 차이점 관찰

(1) 『개역개정』은 ‘곧’으로 시작하여, 22절이 앞 21절의 추가적 설명임을 명시했습니다. 또 두 개의 전치사구 전부 주어 ‘하나님의 의’를 수식하도록 했고, 새로운 절인 b)를 서술어로 만들었습니다.

(2) 『새번역』은 ‘하나님의 의’를 주어로 삼고, 두 개의 전치사구를 모두 서술어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b)는 a)와 별도의 연결 장치 없이 독립적인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3) 『공동개정』은 문장구조를 바꾼 상당한 의역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느님께서서는 …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십니다’처럼 칭의 개념으로 풀었고, 두 번째 전치사구를 목적어로 삼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로 옮겼습니다. 첫 번째 전치사구는 따로 빼 새로운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반면 하나의 절인 b)는 a) 문장 속으로 넣어 ‘아무런 차별도 없이’라는 부사구로 처리했습니다.

(4) 『성경』(2005)은 『새번역』처럼 ‘하나님의 의’를 주어로 삼았지만, 첫 전치사구는 주어를 수식하도록 했고, 두 번째 전치사구를 서술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b)는 『새번역』과 같이 a)와 연결하는 별도의 장치 없이 독립적인 문장으로 처리했습니다.

(5) 개별적인 표현의 차이를 무시한다면, 『새한글』은 a)를 『성경』(2005)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옮겼습니다. b)를 새로운 문장으로 만든 것도 『새번역』이나 『성경』(2005)과 같지만, 이들과 달리 ‘없으니까요’라는 종결어미를 붙여 b)가 앞 a)의 근거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6) 『새번역』과 『새한글』은 b)에 ‘거기에는’을 더하여 축약된 표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려 했습니다.

## 4.3. 외국어 역본 참조

대부분의 외국어 역본은 거의 원문의 구조 그대로 번역합니다. NAS는 a)와 b)를 세미콜론으로 연결하고 나머지 다수 역본은 b)를 새로운 문장으로 시작하지만, 어떻게 하든 근거를 나타내는 접속사(영어는 ‘for’, 독일어는 ‘denn’)를 넣어 a)와의 관계를 명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독일어 BB는 ‘믿음이 하나님의 의를 가져다준다’는 식으로 의역하고, 두 번째 전치사구는 새로운 문장으로 풀었습니다. 하지만 b)를 접속사 ‘denn’으로 연결한 것은 다른 번역들과 같습니다. 반면 영어 NIV나 프랑스어 LSG의 경우는 별도의 접속사 없이 b)를 새로운 문장으로 번역합니다.

#### 4.4. 차이점에 대한 평가

(1) a)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유대인이나 비유대인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문맥의 핵심 논점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번역』은 두 전치사구를 모두 문장의 서술어로 만들어, ‘믿음’이 통로라는 사실 및 ‘모든 믿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각각 중요한 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성경』(2005)이나 『새한글』은 첫 전치사구는 수식어로 따로 빼고, 두 번째 전치사구만 서술어로 만들어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좀 더 도드라지게 했습니다. 핵심 주장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문맥과 좀 더 잘 어울리는 번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믿음’ 관련 전치사구만 따로 빼 독립된 문장으로 만들어 강조하면서도, 정작 근거 진술인 b)를 a) 속의 부사구로 가볍게 처리했습니다. 핵심 주제를 매우 가볍게 처리하는 『공동개정』의 움직임은 쉽게 수궁하기가 어렵습니다.

(2) 본문의 핵심 논리가 드러나는 대부분의 외국어 역본과 달리, 우리말 번역에서는 a)와 b) 사이의 관계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개역개정』과 『새번역』 및 『성경』(2005) 모두 b)를 독자적 진술로 만들지만, a)와의 논리적 연결을 나타내는 장치는 전혀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순서대로 읽으면 마치 b)가 a)에서 도출된 결론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점에서 『공동개정』이 b)를 아예 a) 문장 속의 수식어로 처리한 것은 논리적 흐름을 아예 무시한 잘못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새한글』은 유일하게 선명한 종결어미를 붙여 b)가 a)의 이유라는 논리적 관계를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여기서도 본문의 논리적 흐름을 정확하게 짚어낸 유일한 역본인 셈입니다.

(3) 『새번역』과 『새한글』이 덧붙인 ‘거기에는’은 문맥상 ‘하나님이 사람을 의롭다 여기시는 일에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해당 논증이 막연한 차별 아닌 유대인과 비유대인 사이의 차별을 염두에 둔 것임을 고려하면, ‘유대인과 비유대인 사이에는’과 같이 더 구체적인 표현을 덧붙여도 좋았을 것입니다.

#### 5. 로마서 3:29

GNT <sup>5</sup>	ἡ Ἰουδαίων ὁ θεός μόνον;
『개역개정』	<u>하나님은</u>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나
『새번역』	<u>하나님은</u>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공동개정』	<u>하느님은</u> 유대인만의 하느님이신 줄 압니까?
『성경』	<u>하느님은</u> 유대인들만의 하느님이신 줄 압니까?

『새한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유대아 사람들만의 하나님이라  
는 말입니까?

### 5.1. 본문의 논리적 흐름

3장 후반부의 핵심 논점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믿음을 통해서이지 율법의 행위들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2장부터의 논증 전체가 그렇듯이, 여기서도 율법의 행위들과 믿음 사이의 대조는 유대인들의 배타적 선민의식과 그 경계를 허물려는 바울의 보편적 관점 사이의 대조를 반영합니다. 본 단락의 핵심 논증은 일차적으로 28절의 결론에서 마무리됩니다. 접속사 ἥ로 시작하는 29절은 바울 자신의 주장이 틀렸고 상대방의 주장이 옳다는 수사적 가정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생각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자기주장의 정당함을 재확인하는 귀류법 논증입니다. 곧 29절은 새로운 논증의 시작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주장을 재확인하는 추가 논증입니다. 이는 ‘율법의 행위들’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증이 (도덕적 행위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이방인 관련 논증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접속사의 역할은 매우 결정적입니다.<sup>5)</sup>

### 5.2. 차이점 관찰

『새한글』을 제외한 우리말 역본은 모두 29절 문두의 접속사 ἥ를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개신교와 가톨릭 사이의 ‘하나님, 하느님’ 표기 차이, ‘유대인, 유대 사람, 유대인’의 표기 차이 및 단수와 복수 차이(유대인, 유대인들) 등 비교적 사소한 차이들만 있을 뿐, 사실상 거의 똑같은 취지의 번역입니다. 접속사를 번역하지 않은 것은 『현대인의 성경』, 『우리말성경』, 『현대어성경』 등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모든 한글 역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 5.3. 외국어 역본 참조

(1) 영어 역본들은 대부분 접속사를 ‘or’로 번역합니다. 접속사를 번역하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고(NJB), 원래 번역하지 않았다가(KJV) 개정하면서 ‘or’를 추가한 경우도 있습니다(NKJ). 간혹 ‘After all’로 번역한 경우도 있습니다(NLT).

(2) 독일어의 경우 대부분 ‘oder’(LB, MNT)로 번역하거나 혹은 ‘denn’(ZB, EIN)으로 옮깁니다.

5) 본 구절의 논리적 흐름은 주석에서도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접속사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한 사람으로는 라이트(N. T. Wright)를 들 수 있습니다. 가령, 톰 라이트, 『로마서』, 장용량, 최현만 역 (서울: 에클레시아북스, 2014), 156, n. 131.

(3) 프랑스어 역본들은 간단히 ‘ou’(LSG)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지만, 더 최근의 역본들은 좀 더 세밀하게 이중의 접속사 ‘Ou alors(= or else)’로 번역합니다 (BDS, BFC, PDV).

#### 5.4. 차이점에 대한 평가

(1) 앞서 본문의 논리적 흐름을 살피면서 본 것처럼, 귀류법 논증을 이끄는 접속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영어의 ‘or’가 축어적 번역이기는 하지만, 현 문맥에서 꺾기가 수행하는 역할을 충분히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바울 자신의 주장과 반대되는 가정을 제시하는 대목이기에, 독일어의 ‘denn’ 역시 다소 아쉽습니다. 반대 가정이라는 상황에 맞게 가장 잘 번역한 것은 프랑스 역본들의 ‘ou alors’(BDS, BFC, PDV)라 할 수 있습니다.

(2) 이 구절에서 우리말 역본의 번역은 아쉽습니다. 외국어의 경우 대부분 접속사 꺾기를 축어적으로 혹은 역동적으로 번역하는 반면, 우리말 역본들은 『새한글』 외에는 어느 것도 이 접속사를 번역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 역본들에서는 29절에서 바울이 상대방의 입장을 가정하며 귀류법 논증을 펼친다는 사실을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3) 『새한글』은 우리말 역본 중 유일하게 접속사 꺾기를 ‘그렇지 않다면’이라고 번역합니다. 이렇게 하여 바울이 지금 자신의 주장과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혹은’이라는 축어역만으로는 귀류법 논증 상황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 이를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풀어 번역한 것입니다. 프랑스어 역본의 ‘ou alors(= or else)’와 마찬가지로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그 취지를 잘 드러낸 최선의 번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 6. 나가는 말

지금까지 로마서 앞부분의 몇몇 구절을 선택하여 논리적 흐름 관점에서 『새한글』을 다른 역본들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위에서 살핀 것처럼, 기존의 우리말 역본들은 서신서 논증의 논리적 흐름을 드러내는 데 유난히 취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논리를 지탱하는 접속사를 제대로 번역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아쉬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새번역』 사례에서 보듯, 이는 비교적 최근의 역본에서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새한글』은 기존 역본들의 한계를 상당 부분 개선한 것으로 판단됩니

다. 원문의 접속사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또한 이를 문맥에 맞는 선명한 우리말로 옮기려고 노력한 흔적이 번역 여러 곳에서 확인됩니다. 생각의 흐름을 짚어 주는 논리적 표지판이 잘 정비되어 있어 바울의 논증을 따라가기가 더 쉽고, 결과적으로 그가 선포하고자 했던 메시지의 핵심에 훨씬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만 살펴보았지만, 분석을 로마서 전체 혹은 바울서신 전체로 확장하면 이런 장점이 더 확실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젊은 한국의 그리스도인을 위한 『새한글』의 유용함은 신약과 시편의 번역만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본문의 논리적 흐름을 더 정확하고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번역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새한글』의 공헌은 매우 소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제어>(Keywords)

로마서 1:16-17, 로마서 2:1, 로마서 3:22, 로마서 3:29.

Romans 1:16-17, Romans 2:1, Romans 3:22, Romans 3:29.

(투고 일자: 2024년 9월 9일, 심사 일자: 2024년 9월 24일, 게재 확정 일자: 2024년 12월 30일)